BBS 사장 후보 공모

진흥원, 5월 27일부터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BBS 사장 추천을 위한 후보자를 공모한다.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개발·보급할 강한 의지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륜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사진·상벌사항·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경영계획서 1부(A4 5매~10매),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의견서(선택사항) 등이다.

제출 기간은 2015년 5월 27일~6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의 사장 후보 추천 공모는 BBS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하는 'BBS정관 제5조 5항' 에 의거해 실시된다. 문의 (02)719-185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해야"

재가연대 등 4대 단체 성명 발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히로시마 원폭피해자 및 후손을 지원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와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스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 등 4개 단체는 5월 6일 성명을 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피해 진상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으며 지난 70년간 일본의 연구자료에만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눈 밝은 선지식 배출이 총림의 역할"

인터뷰 –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원 각 스님

"해인총림의 역할은 눈 밝은 공부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 도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원각 스님〈사진〉은 5월 6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7일 열리는 추대법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각 스님은 해인총림의 위상과 퇴설당의 의미를 설명하며 수행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원각 스님은 "해인사에 안거 기간 동안 모여 수행 정진하는 대중이 5백여 명이 된다. 효봉 스님이 계실 때 가야총림으로 시작해 1967년 성철 스님이 주석하실 때 해인총림으로 모습을 완성했다"고 설명하며 "눈 밝은 도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지 스님들이 뒷받침을 해서 총림이 여법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각 스님은 주석처인 퇴설당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참선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퇴설당의 뜻은 '눈 더미' 란 뜻"이라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눈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 말은 대중이 모여서 세상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참선 공부하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퇴설당은 한국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이 구한말에 지은 것으로 이곳에서 경허 스님은 선원을 개설하고 대중을 모아 정진했다. 원각 스님은 "은사이신 혜암 스님이 방장으로 주석하실 때도 이곳에 계셨다"면서 "은사 스님께서는 '공부하다 죽어라' 는 법문 자주 하셨다. 공부 열심히 해서 생사 해탈하라는 의미다. 퇴설당의 이러한 역사를 잇고 해인 총림의 역사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가풍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현대 선지식으로 모시고 수행 정진한 스님은 공부의 치열함이 없는 현재 수행 풍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원각 스님은 "1967년에 해인사에 왔을 당시는 잠을 자려 누웠다가 잠에서 깨보면 1/3은 앉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도 깜짝 놀라 앉아서 함께 공부를 했다"면서 "요즘은 참구하고 묻고 하는 스님들이 없다. 성철 스님이 계실 때만해도 공양 후 차담도 하고 대중이 앉아 방장 스님의 법문을 듣곤 했다. 잘못을 하면 대중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했다.

해인총림 방장 추대과정의 대립과 불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해인사 대중이고 부처님 제자"라며 화합된 모습으로 지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원각 스님은

"퇴설당, 세간에 관심두지 말고 참선 공부에 매진하라는 의미" 치열함 없는 수행 풍토 아쉬움

"대중과 공감하도록 중지 모아야" 젊은이 소통위해 SNS 사용 고려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해인사 대중이고 부처님의 제자다. 등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 추대 법회에도 대원 스님은 참석하신다.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지 선출과 임기에 대해서 스님은 "동그란 구멍은 동그란 것으로 막아야지 리무진으로 막으면 안될 것"이라면서 "화합해 잘 지내야한다. 공익을 의논해서 주지 스님과 모두가 합리적으로 잘 돕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조화스럽다는 말은 어떤 일을 처리 할 때 산중 구성원들이 공감 할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넣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서로 노력하면 총림도 달라지고 위상도 높아진다 "며 원융화합을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스님은 본래 마음자리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원각 스님은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고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살기가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도리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각박하다"면서 "부처님은 이런 세상을 두고 '불난 집과 같다' 고 했다. 불을 꺼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일화라고 했다. 본래 입장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대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 원각 스님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여지껏 구형 폰을 사용하다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SNS도 이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원각 스님은 1966년 해인사 입산, 1967년 혜암 스님을 은사로, 자운 대율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비구계 보살계를 수지했다. 법명은 원각, 법호는 벽산이다. 수계 후 해인총림에서 첫 수선안거 이래 통도사 극락암 선원. 송광사. 상원사. 봉암사. 범어사. 불국사 등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20여년간 정진했다.

이후 거창 고견사 주지. 백련불교재단 이사 및 조계종기본선원 운영위원. 선원수좌회 복지재단 이사.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그리고 해인총림 유나 등 대중소임을 맡아 수행공덕을 회향했다.

특히 재가불자 수행을 위한 원력으로 2002년부터 원당암 달마선원장으로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 소임을 맡아 은사스님의 유지계승 및 선양사업에 매진해 왔다.

합천 해인사= 하성미 기자

네팔 지진 참사, 韓 불교 자비 손길 이어져

조계종 봉사단 구호물품 배분
사찰·단체들 모금 활동 이어가
진각종 등 네팔 대사관에 성금

네팔 대지진 참사를 돕기 위한 한국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각평)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현지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분했다.

봉사단의 구호물품 배분이 이뤄질 곳은 네팔 정부가 지정한 12개 최우선 식량지원 지역 중 하나인 신두팔촉(Sindhupalchowk) 지역으로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약 60km 떨어져 있다.

봉사단이 현지에서 구매한 15만 달러 상당(한화 1억 6000만원)의 긴급구호키트는 쌀, 납작쌀, 소금, 콩, 라면, 식용유, 전통차, 설탕, 밀가루, 비누 등 10가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은 125톤 분량의 구호키트 5천개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하나씩 전달했다.

지난달 4월 27일 네팔에 파견된 봉사단은 현지 사정에 맞춰 활동 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해 활동했다.

천태종 등 종단들도 네팔 돕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천태종은 5월 1일 열린 삼광사 정기법회를 시작으로, 3일 서울 관문사 정기법회와 부산 삼광사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등 전국 사찰에서 봉행되는 정기법회 등 각 행사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불성금을 모연 중이다. 또한 한달동안 '네팔 지진피해 희생자 애도와 피해 복구를 위한 한 등 더 달기 운동' 도 전개한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5월 4일 네팔 지진 피해자들의 긴급구호와 재해복구를 위한 성금 1만 달러를 네팔대사관에 전달했다.

총무부장 덕정 정사와 교무국장 수각 정사는 카만 싱 라마 주한네팔대사를 만나 통리원장 회정 정사의 애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4월 25일 지진피해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왕생성불과 상해를 입은 이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구호 단체들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이하 공생회)는 5월 1~2일 최대피해지역인 신두팔촉 내 멜람치, 두바초르, 키울, 팔촉, 볼캉, 바스하카 등지에서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쌀과 콩, 소금, 라면 등 식량을 위주로 모두 8000kg 분량이다.

공생회 측은 "구호팀은 네팔 현지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지역 조사와 접근이 유리하다"며 "앞으로 추가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피해주민들을 효율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만들어요 조계사는 이미 부처님오신날이다. 5월 7일 조계사(주지 원명)는 일주일 동안의 정성을 들여 봉축표어를 등으로 장엄했다. 1만여개의 등이 이뤄낸 장관 이면에는 각자의 등에 적힌 불자들의 소원이 있었다. 사진=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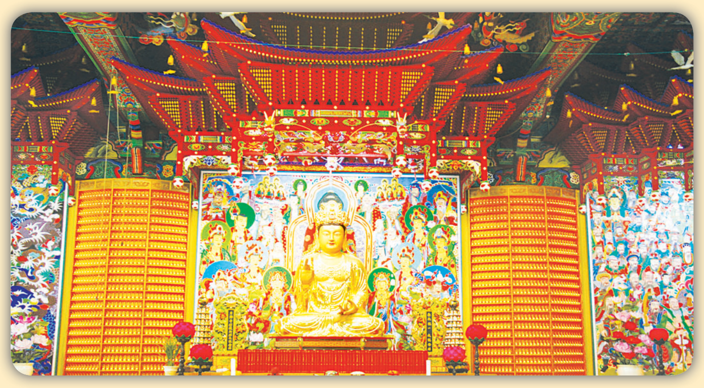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보련기획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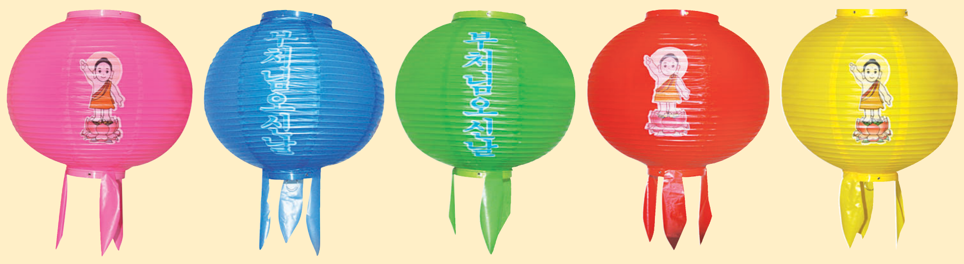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